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1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충현복지마을 · 수양관 건립

(세계선교훈련원)

경기도 가평의 2만평 대지 위에

교회는 지난 9월 6일(수) 오후 8시 30분 베다
니홀에서 임시당회를 열어 충현 복지마을
설립 및 충현 세계선교원(충현 수양관) 건립
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충현 복지마을은 현재 사용 중인 경기도
광주 소재 「충현기도원」부지 위에 모든 편의
시설물을 보완 또는 증축하여 사용케 되는
데, 이곳에서는 일평생 주님께 헌신 봉사하고

영성훈련과 세속화되어가는 세계교회를 향한
영적 갱신의 훈련센터로 사용된다.

이는 우리 교인들의 수양관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세계 선교
의 비전을 갖고 추진 중에 각 나라에서 초청
된 복음주의 교역자들의 영성훈련과 신학교
육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센터로 손색이 없는
국내 유일의 수양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자녀없는 은퇴 여교역자 위한 성로원 시설 지체 부자유자 위한 교육훈련 장소로 활용

은퇴한 자녀 없는 여전도사를 위한 성로원
과,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소외당한 절망 중에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소망의 보금자리로 마련되고,
또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특수학교를 설립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해 현당을 마치고
이제는 공헌하는 교회로서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던 중 새로운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 창출을 내세워 우리교회 기도목표인
교육·선교·구제의 세 기둥 가운데 구제측
면의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마을
을 설립케 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청평호수 옆)
에 소재한 2만여 평의 대지에 건축될 충현
세계 선교원 및 충현 수양관은 충현 가족의

이를 위하여 당회는 충현 복지마을 종합계
획 준비위원회나 충현 세계선교원 건축위원
회를 구성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충현 복지 마을 종합계획 준비위원회

▲ 위원장: 이종윤 장로

▲ 위 원: (장로) 기획실 장로, (집사)

김상규, 박상준 집사

※충현 세계선교원 건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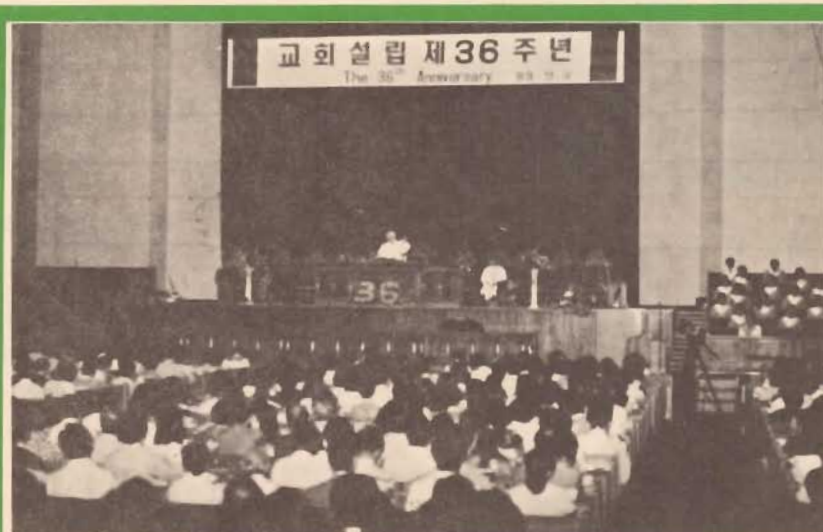
▲ 위원장: 오진국 장로

▲ 서 기: 박철훈 장로

▲ 당면직: 당회서기, 기획실장, 사무국장

▲ 위원: (장로) 우기전, 오정현, 김광진,
이창호, 최명환, (집사) 임봉남, 김대호, 진홍
용, 정홍식, 최동규, 홍춘식, (권사) 이옥녀,
백영희, 노영숙, 원도화, 김석운

▲ 유급행정직: 미 정



▲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 감사예배 모습

카메라초점



▲ 기념 음악예배(아멘찬양대의 「천지창조」 연주 광경)

제2회 장애인돕기 자선바자회

10월20~21일 본당 옆 광장서 개최

구제위원회는 충현교회 설립 제36주년
기념 및 장애자를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오는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본당 옆 광장에
서 개최한다.

성도 간의 사랑의 친교, 교회의 성숙된
모습과 각 교구간의 협동심, 그리고 구제사업
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동

자선바자회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갖게
된다.

금년도에도 약 5천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판매목표로 개최되는데, 각 교구별로 지정품
목(식당예배), 권유품목(과일·농산물·건어
물), 그리고 직영점으로 교회열매, 켄, 도자
기, 액자, 각종 식품, 기념품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를 추진시킬 예정이다.

이 일을 위하여 대회장에 이종윤 위임목
사, 부대회장에 각 교구목사, 각 위원회 위
원장을 위촉 했으며, 바자회 운영위원장에는
오진국장로가 선임되었다.

또 운영위원으로는 각 교구장 장로, 여교역
자, 남여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사연부와
행정부로 실무책임자를 맡겨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안수집사 · 권사 선출

9월17일 · 10월1일 공동의회 열어

교회는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선출
하는 공동의회를 오는 17일, 10월1일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의회에서는 선거방법 및 선거일행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지고, 선거결과는 10월8
일(주일) 공표하기로 했다.

피택 안수집사 교육은 10월부터 90년 3
월까지 당회주관 아래 성경연구원에서 교육
을 실시토록 했으며, 고시는 1990년 3월 3
1일(토) 오후3시에 치르며,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예배는 1990년 4월 13일(금)
오후7시에 갖기로 했다.

이번의 권사 선거제도는 본교회 설립 이래
처음있는 일로써 매우 의미가 크며, 교회행정
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이다.

시무권사 취임예배 89년 11월 5일 오후7시

본교회는 현재 시무하고 있는 권사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25일, 26일 교육을 실시
하는 한편, 11월5일 오후7시 주일 찬양예배
시에 취임식을 갖도록 했다.

김창인원로목사

선교와 성지순례차

김창인원로목사가 지난 6일 오후3시 KAL
기 편으로 출국했다.

김목사는 약 70일간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터키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는 11월15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지원교회 4곳 승인

전도위원회 강원도지역에

전도위원회는 강원도 지역 4개 처에 지원
교회를 승인하고 각 남·여전도회로 하여금
매월 지원토록 했다.

① 송계리교회(한주석 전도사 시무) 강원
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67(에스더12지회
에서 지원)

② 봉정교회(유남표 목사 시무) 강원도
정선군 북면 봉정리(에스더3지회에서 지원)

③ 미산교회(원인석 전도사 시무) 강원도
평안군 미탄면 울치리(에스더11지회에서
지원)

④ 설민교회(송종석 목사 시무) 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810-12호 43동3반(바울1
4지회에서 지원)

이종윤위임목사의 수요일예배 성경강해 시리즈 ⑩



본문 / 요 6장 16절~21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들 중에는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암울했던 기억은 사람을 침울케 하고 위축시키고 스스로 소외시켜 무기력하게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기억은 제 2, 제3의 시련을 극복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잊어서는 안될 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1.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메시야로 보여졌고 이 떡을 얻어먹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피하여 잠시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인기를 얻고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억지로 왕을 삼겠다는

눈을 들어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데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오늘의 양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막 6:45)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10여리쯤 노를 저어갔을 때 바람이 일고 물결이 뛰노는 무서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18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고 구원의 여정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낮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바다로 떠나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텐데 지금 그들 중 아무도 이 사실들을 기억해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 일이나 직장을 가진 일이나 혹은 봉사를 하는 모든 것이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므로 명령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잊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까맣게 잊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성숙을 위해서 그들을 바다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풍랑을 일으킨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증거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니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근심 속에서 살게되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진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공관복음(마 8:23-27, 막 4:35-41, 눅 8:22-25)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는 다른 사건인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성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공관복음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전의 사건이고 요한복음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의 사건입니다. 공관복

잊지 말라 (Never Forget)

음의 사건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본문에는 산에 계심)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은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였고 바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그때의 일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으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흔적이 없고

배에 가까이 오실 때 오히려 유령이라 하여(마 14:26) 두려워하였습니다.

2. 제자들을 관찰하신 예수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6장48절을 보면 '그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나 목사에게도 오고 요셉과 같은 의인에게도 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도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프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도 맞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환난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인생들은 주님을 못보고 있습니다. 너무 풍랑이 심하고 현실이 어려워서 그만 현실에 묶여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가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발생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분별

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한 순간 한 동작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전부를 다 관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시궁창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찾아 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10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사건 속에서 과거의 주님의 역사 기억해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라는 말씀은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27절 말씀에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은 남편보다 더 가깝고 아버지보다 더 가깝고 우리의 어떤 보호자보다 더 가깝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마 10:29) 별들의 이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주님이 오늘도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말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3. 제자들을 도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관찰하신 이유는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관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인도할까 해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인생들은 주님의 도우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주님의 도우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관찰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따라가는 불쌍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4.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6:21)

목적지에 무사히 인도하십니다. 광풍이 일어나도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셔야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데서 구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려는 곳으로 또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르신 예수님은 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길도 열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바다, 높은 파도, 어두운 밤, 이 모두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방향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에게 맡겨 버려야 합니다. 생명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재물도 일찌감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열어 주시고, 닫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직원채용 공고

본 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교회직원을 채용한다.

모집부문 / ① 보일러공...유경협자 약간명
② 미화부 직원(남)...약간명
③ 사무원(여)...여상고 졸업자

구비서류 / ① 이력서 1통
② 교인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 등본 및 자격증 사본(①, ③항) 1통

제출처 / 교회 사무국

충현교회 사무국

8월 성례 86명
예배위 보고서 발표

예배위원회는 8월 성례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학습 47명, 세례 26명, 유아세례 7명, 입교 5명, 개종 1명, 계 86명.

바로잡음

제27호(1989년 9월 2일자) 1면 머리기사 중 동시통역예배는 영어·일어·중국어이며, 충현 성경암송기록자 수는 3천명이 아니고 6천2백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福音化된 통일 祖國을 위한 前進 대회

10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눈을 들어 조국을 보라" 주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는 10월1일(주일)부터 11월5일(주일)까지 실시된다.

"눈을 들어 조국을 보라"라는 표어로 실시된 전진대회의 목적은 교회설립 제36주년 맞아 충현교회는 이 시대, 이 민족의 소망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지상명령인 복음전도의 실천에 있음을 신하고 기도와 훈련과 증거를 통하여 구령동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헌신과 충성을 례게 하는데 있다.

행사 및 일정 계획을 살펴보면 9월26일(토) 오전·저녁 전도세미나(특강, 간증)로부 시작하여 전도특별 기도회, 잃은양 찾기, 신자전도, 개인전도 축회 및 노방전도실, 전도부흥회(11월1일(수)~11월3일(금)사: 이동원목사), 헌신예배(10월1일) 및 사예배(11월5일 저녁), 충진군의 날(11월5 낮), 모범전도회, 모범구역, 개인전도상 상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도대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 이종윤위임목사

▲고 문: 김창원원로목사

▲조직위원장: 윤종성장로

▲지 도: 김익경목사

▲조직부위원장: 강은원장로

▲총무부: 김경철, 김종구, 오정수, 강 협

장로, 권명옥, 박문태집사

▲기획부: 김광석목사, 정하우장로, 박상준

집사, 이해숙집사

▲행사부: 김학진목사, 정광호장로, 한송규

집사, 박명엽집사

▲동원부: 이세열목사, 김원선장로, 김여순

집사, 안병호집사, 조계진권사

▲홍보부: 김성윤목사, 조선근장로, 이승철

집사, 정영희집사

▲봉사부: 이원길목사, 김광남장로, 최순복

전도사, 임무천집사, 방계운권사

충천프리즘

☆ 교회생일 모두가 기뻐다.

36살의 충현교회 기념일인 지난 9월3일엔 충현의 가족들이 정장과 한복으로 입고 나와 밝은 웃음, 정다운 악수, 사랑의 눈길로 하루를 지냈다.

이날 따라 교회식당 만나홀에서는 별미인 소고기국밥이 나와 오래간만에 맛있는 점심을 들기도 했다.

기념 감사예배에서 설립자인 김창원원로목사는 36년을 회고하면서 감회에 젖은듯 했다.

기념 감사예배에서 설립자인 김창원원로목사는 36년을 회고하면서 감회에 젖은듯 했다.

뜻과 나오미의 얘기를 전개하면서 「선택을 바로하자」는 이날의 2, 3부 메시지는 많은 감동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맛보게 했다.

이종윤위임목사도 1, 4부 예배에서 지난 36년을 회상하여 고마운 전통과 자랑스런 신앙유산들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천년대를 기대와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념 음악의 밤 「천지창조」 연주

기념일 저녁 7시엔 아멘찬양대 가주축이 되어 126명의 대원들의 정성어린 찬양이 참석한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다.

약 1시간에 걸쳐 연주된 「천지창조」는 제1부 서곡 혼돈에서

천지의 출현으로부터 제3부 합창과 사중창인 「만민아 소리높여 찬양하라」로 끝을 맺고 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뒤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한 아멘찬양대 대장 노광현장로, 부대장 전홍렬집사, 총무 김철환집사의 힘이 컸다.

☆ 89년도 하기농어촌 전도대 파송 보고대회

지난 7월24일부터 8월4일까지 1, 2차로 실시한 농어촌전도대 파송엔 176명의 대원들이 참가했다.

8월17일 오후6시에 가졌던 보고대회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전도실시 가구 수는 1, 124세대 결신자 총수는 136명으로 나타

났으며, 저녁부흥회 평균 참석 인원 수가 414명으로 집계되었다.

종합평가에서 전도활동 중 어려운 점으로 ① 이단의 사전 전도로 인한 어려움, ② 불교, 무속종교의 성행, ③ 유류부단한 주민성, ④ 경제적인 빈곤, ⑤ 의타적인 주민 의식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성경학교 인도팀과 전도대원의 분리가 연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예산도 한 팀당 최소한 5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전도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었으며 농어촌교회 제직들에게 전도의 자극을 주었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한편 공석중인 영아부 남부감에 김구형집사(현재 청년1부 교사)를 임명했다.

찬양대원 추가임명 할렐루야에 7명

예배위원회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할 찬양대원 7명을 당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했다.

임명된 찬양대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앨토=권정미, 정은혜, 홍의숙, 김은규, 이향순, ▲테너=이규연, ▲베이스=오규덕.

충현유치원 원감에 정지자씨 임명

교회는 충현유치원 원감에 정지자씨(47세)를 임명했다.

정원감은 이대 교육과 및 동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며 숭의여전 유아교육과 강사, 그리고 강남사회복지대 유아교육학과 강사로 재직한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안내 암송범위: 마태복음 5장~7장(총 111절)

- 1) 영아반(만 4세 이하) 마 5:3-10(8절)
- 2) 유치반(꽃반) 마 5:1-13(13절)
(열매반) 마 5:1-16(16절)
- 3) 유년반(국교 1학년) 마 5:1-26(26절)
(국교 2학년) 마 5:1-32(32절)
- 4) 초등반(국교 3학년) 마 5:1-48(48절)
(국교 4학년) 마 5:1-6:8(56절)
- 5) 소년반(국교 5학년) 마 5:1-6:18(66절)
(국교 6학년) 마 5:1-6:34(82절)
- 6) 중등반(중등부 및 만 13세-15세) 마 5:1-7:29(111절)
- 7) 고등반(고등부 및 만 16세-18세) 마 5:1-7:29(111절)
- 8) 직전반(직전부 및 근로청소년) 마 5:1-7:29(111절)
- 9) 대학반(대학부 및 만 19세-22세) 마 5:1-7:29(111절)
- 10) 청년1반(청년1부 및 만 23세-26세) 마 5:1-7:29(111절)
- 11) 청년2반(청년2부 및 만 27세-29세) 마 5:1-7:29(111절)

- 12) 장년1반(장년1부 및 만 30-39세) 마 5:1-7:29(111절)
 - 13) 장년2반(장년2부 및 만 40-49세) 마 5:1-7:29(111절)
 - 14) 장년3반(장년3부 및 만 50-59세) 마 5:1-6:34(80절)
 - 15) 소망반(소망부 및 만 70세 이상의 노인) 마 5:1-6:48(48절)
 - 16) 새가정반(새가정부 회원) 마 5:1-7:29(111절)
 - 17) 사랑반(사랑부 학생) 마 5:3-10(8절)
 - 18) 예배다반(예배다부 및 농아자) 마 5:3-10(8절)
 - 19) 새신자부 및 세례부에서 교육 중인 성도와 교사, 찬양대원, 남·여전도 회원, 교역자, 장로 등 교회학교 학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는 해당 연령의 반에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한다.
- ▲ 참가신청: 9월17일 교회학교 각부서(해당)
▲ 실시요령: 지정된 성경을 순서대로 가장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장절을 분명히 하여야 함)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준비위원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읽기」를 편집하여 발행하여 9월1일부터 실시

90년 8월 31일까지 성경(신·구약) 일독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진 읽기표는

장학회, 89년도 하반기 장학 대상자 57명에게 장학금 지급

장학회는 1989년도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 57명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지급기로 했다.

성적이 B학점(80점 이하) 이하일 경우에 장학금 지급이 보류된다.

청원된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학원=양창균, 남재중, 윤석산

▲일반대학=박은영, 이현주, 김양선, 김현

, 이정은, 강은미, 김나중, 이은경, 송준

, 최윤식, 송윤경, 황옥진, 박경주, 김광

, 정재용, 박충렬, 이형준, 조석제, 임승

, 박정민, 신진철, 홍성민, 문영미, 김혜

, 조현정, 김혜연, 최연희, 오정성.

▲고등학생=김창성, 김훈정, 신익수, 김효

, 김성준, 천성민, 이영원, 박윤호, 이은

, 유지철, 강석진.

▲중학생=박동석, 안세진, 김시원, 서인

, 원동찬, 하성두, 이종석, 김성하, 최동

, 이승은, 최혜숙, 서선화.

▲혜외 장학생=이석선, 이석현, 이재서.

교회설립기념 음악예배 「천지창조」 연주

교회설립 제36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음악예

배가 지난 9월3일(주일) 오후7시 본당에서

온힘롭게 연주되었다.

이날 제4부 찬양대인 아멘찬양대 126명과

독자투고

충현교회에 특수부인 농아부를 창설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중윤 위임목사님께서 35만 청각 장애자를 위하여 복음의 뜻을 두시고 충현교회에 1988년 10월 8일을 기하여 에바다부를 창립하신 것을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농아부가 충현교회에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막상 봉사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화할 수 있는 수화 문제이고, 둘째 그들과 접촉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리감 때문이었으며, 셋째 그들을 도와 시켰던 마음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1월에 농아부에서 봉사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영적 장애자였던 내가 자아발견을 하고선

다. 봉사는 어느 부에서나 할 수 있었고 또 봉사를 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에바다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농아부에 총무와 교무는 공석이었고 모든 행정은 부장님과 지도전도사님께서 잘 해오셨습니다.

그당시 학생부 재적 수가 남자 22명, 여자 16명, 도합 38명이었는데 현재 재적 수는 남자 40명, 여자 22명, 도합 62명이 되었지만

출석 학생 수는 전보다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지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우선은 교통수단인 차량문제로 보아집니다. 지금 농아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는 12인승 봉고차인데 인원 수가 많아 20명 가량을 한꺼번에 태우다보니 인원초과로 교통경찰에게 걸린 적도 있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인원

초과로 벌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정원 초과시 사고라도 난다면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인원 초과를 법을 위반하는 것이요 타고다니는 사람에게도 곤욕이 될 것입니다. 또 택시로 수송도 하였지만 한 사람도 아니요 또 매번 택시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나 학생들이 고생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려고하지 않겠지요. 당연히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아부에는 지도 및 처부장단을 제외하고 일선 교사로 봉사하는 선생님이 학생부와 성인부 합쳐서 22명인데 학생부와 성인부 양쪽을 봉사하는 선생님도 세 분이냐 됩니다. 다른 부서의 교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

히 에바다부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은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서(에바다부) 안에 두 개의 부서(학생부, 성인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 다른 부에 비하여 급의 수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학부개편과 행정요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더많은 시설도 요구됩니다.

지금 저는 매우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글을

에바다부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에바다부에서 자아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는 영적 장애자였던 것을 발견했고,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또 나의 신앙관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부에서 봉사하는 교사는 헌신적 사명감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로 13:8)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기란 그리 쉽지 않지요.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이여 장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각 지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때 협조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

인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차량봉사를 하계신 세 분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충현의 에바다부는 글자 그대로 에바다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창립 1주년을 앞고 에바다부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봉사한 후로 교사를 위한 교강, 제1회 학생부 겨울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성인부 제1회 여름 수양회를 은혜 중 무사히 마쳤고 노방전도, 찬송부르기 대회, 모범교사 연구수업, 학생을 위한 특강, 반등산대회, 신앙간증, 성경퀴즈 및 암송대회, 초청전도집회, 수학교육 개강 및 수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해왔습니다.

충현의 에바다부는 희망이 있는 부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사랑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집사·에바다부 총무)

에바다 수화교육 안내

대상 / 수화교육에 뜻이 있는 성도

교육기간 / 9월18일~11월25일

모집기간 / 8월13일~9월17일

(초급반·중급반·고급반)

접수처 / 소석관 109호(에바다 사무실)

※ 등록금 없음

교회학교 에바다부

구역예배를 위한

충현다락방

1989년 9월 15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7과 순결한 생활

성경: 고전 6:18-20

요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찬송: 193, 186장

교회가 점점 성경적인 윤리관에서 멀어지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윤리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순결한 삶의 절대성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

1. 우리에게 왜 순결이 중요한지 고전 6:18~20을 보시오.

1)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할 첫번째 이유

우리 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고전 6:19)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도 정결케 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토크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행 17:18) 몸은 항상 악하여 구제불능이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학대했으며, 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다. 그러나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2)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두번째 이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값으로산 바 되었고, 우리의 영육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며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원리(딤후 2:22)

1) 피해야 한다.

정욕을 자극하거나 정욕에 쉽게 무릎꿇게하는 대상이나 환경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창 39:10-12 요셉의 경우) 사생활 속에 피해야 할 대상 또는 환경을 같이 생각해 보라. 또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깨끗한 자들과(성도)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악한 친구나 환경, 세상적인 분위기의 친구를 끊지 못해서, 더럽혀져 가는 내 영혼을 주목하고 통회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약하기에 좋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가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3) 하나님과의 투명한 교제

가장 유일하고도 큰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능이시기 때문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 삶이 머물러 있을 때, 즉 하나님과 늘 투명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정욕의 울무에 넘어지지 않는다.

3. 순결한 삶에 실패하면 잃어버리는 것(시 51:10-12)

1)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럽힌다.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추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

2) 구원의 기쁨과 모든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든 교제가 끊기어 어두운 영혼으로 전락하고 만다.

함께 생각합시다.

1.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고 2-3분 동안 자신의 순결생활에 대해 반성해 본다.

2. 나의 순결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여 끊을 것을 결심해 보라.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을 주장하사 모든 정욕에서 나를 지키시며,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